

12기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보내는 기쁨: 12기 남여대협
받는 즐거움: 남여대협 산하 각 대학 여학생회 및 학생회
제 출 날짜: 1999년 3월 24일 수요일
용도: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기획 토론용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0. 들어가며
 1. 대의원대회의 의의와 목표
 2. 대의원대회의 핵심기조
 3. 대의원대회 성과를 위한 자세와 지침
 4. 일시 및 장소, 참가비
 5. 대학별 대의원대회 준비 이령개
 6. 안전의식화 방도
 7. 조직화 방도
 8. 대의원대회 실현 방도 (주요일정)
 9. 대의원대회 안전 및 계획
 10. 전체 일정 정리
 11. 기타
- 별첨
- 단위 안전자료
- 초청장 및 제안서

• • • •
오월의 땅 자주의 새바람 12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1.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의의 및 목표

첫째로, 99년 5만 여학우, 10만 청춘의 투쟁과 단결의 구심 12기 남여대협 의장님을 5만 여학우와 10만의 이름으로 세워 내면서 지난해 대의원대회에 이어 남여대협의 조직적 기풍을 확립하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총노선 토론 및 확정을 통해 99년 남여대협의 총노선을 확정하고 자주·민주·통일 투쟁 속에 여성해방의 과제를 도출하여 매진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셋째로, 남여대협 대의원대회는 지난 11년간의 여학생운동의 성과와 모범을 계승하고 한발더 나아가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살아가는 여학일꾼의 모범을 10만 청춘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여학생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드높이고 정치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당면시기 전쟁책 등을 분쇄하기 위한 주한미군철거 투쟁, 정신대문제 완전해결, 사대매국정권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의 내용을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99년 비상시국에서 출발 4·2, 4·3총궐기와 민중대회를 성과적으로 총화하고 이후 4·10투쟁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선상에서 중요한 투쟁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여학일꾼들과 참가한 새내기의 드높은 투쟁의 결의가 남총련과 한총련강화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로, 대학운동의 발전에 일대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남여대협 대의원대회의 핵심기치

→ 1년 열두달, 12회를 학교같이

추후 논의

3. 남여대협 대의원대회에 임하는 자세

여학일꾼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으로

전쟁책동이 고조되고 민족이 운면이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 잇음으로 인하여 99년 새해벽두부터 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여학일꾼들에게 당면한 정세의 극박성속에서도 여성민중의 입장에서 딥면 투쟁을 좀더 전면화, 전문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올한해 여학생운동이 니아가야 할 종적 좌표와 올바른 여학생운동과 전체운동과의 관계를 밝혀 즘으로서 여학일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전체운동에 강화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8년의 여학생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짚고 향후 여대협의 발전적 전망을 내와야

이 지역 여학생운동이 올해로 12년째에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정립과 각 대학별 모범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학생운동의 뿌리와 근원을 잘 알지 못하고 성과를 성과로 받아안지 못하는 모습과 한편으로 자족적으로 정체에 머무르는 모습 양극단의 모습이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학생운동의 11년간의 전체적 총화를 통해 기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이후 전망을 내오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남여대협의 기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전일적인 조직적 토대를 공고히

남여대협은 지난해 총회를 통해 기간 10년간의 여학생운동을 풀어갔던 조직적 토대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대 여학생회장님들까지 그 조직의 폭을 확대하고 강령과 규약을 정하면서 명실공히 한 조직으로의 발전을 꽤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대 여학생회장님까지 구속이 되는 극심한 탄압을 받고 그것이 한명, 한명이 중요한 여학단위의 조직적 손실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적 힘을 가지고 여대협 대의원대회를 치뤄내면서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강화를 꾀할 것입니다. 여대협 의장님을 단결의 구심으로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의 드높은 결의가 단대 여회장, 가능하다면 과여부장까지 그 범위를 넓혀 여학생운동의 조직, 사상적 수준을 높여내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범과 모범을 5만 여학우, 10만 청춘의 가슴에

어려운 단위의 실정 속에서, 적은 수의 간부로 하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학생운동의 모범을 일구어온 숨은 여학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우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여학생운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수많은 단위의 모범을 함께 공유하고 전제화 시켜내는 소중한 자리에 각 모범을 가슴에 담겠다는 결의로 준비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 여학운동 발전의 일대 전환기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학교의 과여부, 단대 여학생회, 총여학생회로 이어지는 여학생회 골간체계가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를 받아 안는 대학 여학일꾼들은 대의원대회를 대중적으로 준비하면서 자기 대학 학우들과 일꾼들에게 신심과 대중적 기반을 펼쳐낼 수 있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다른 대학일꾼들의 경우 대학의 운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학우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여학일꾼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대학의 간부일꾼들과 10만학도가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군중적인 자리로

대의원대회 전까지 진행되는 의견개진운동과 의장 추천서, 및 대의원대회에서 담아질 투쟁의 내용을 각 학교의 집회 및 각종 공간에 선전활동을 통해서 전체 대학일꾼들과 학우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준비되고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대학의 실무적 하중으로 대의원대회가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선전에서부터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전 대학이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면 정세 속에서 반미 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4월 투쟁을 힘있게 폭발시키는 장으로

대의원대회의 모든 내용은 당면 투쟁을 잘 풀어내기 위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일꾼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결의를 높이고 민중들의 아픔과 분노를 직시하는 속에서 여학일꾼들의 투쟁을 일구어가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전개됐던 2월 26일 군산미군기지 투쟁과 3·19상경투쟁의 성과를 받아안고 4·2·4·3투쟁에서 단련된 일꾼들을 더욱 반외세 구국 투쟁 속에 여학일꾼들이 선봉에 서서 투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10 민중대회와 이후 한총련 대의원대회로 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여대협과 한총련 강화를 과여부, 새내기에서부터

이 지역의 경우 대학의 선거상황 및 혁정권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조건속에서 투쟁하는 조직들이 온갖 언론과 권력에 의한 유형, 무형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와 투쟁포기를 설파하는, 그 속에서 우리학우들의 시선을 흐리게하는 흐름들속에서 진정한 우리 조국의 현실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직시하며 온갖 탄압에도 끗없이 자리를 지켜왔던 전여대협과 한총련 강화에 쐐기를 박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내기와 골간일꾼등 광범위한 우리일꾼대중을 남여대협의 너른 품안에

새내기들이 철저히 왜곡된 환경 속에서 생활을 보낸 지난날을 벗고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98새내기들은 앞으로 운동을 책임질 귀중한 동양이며 을 한해 투쟁에 떨쳐 일어서야 할 대중이기도 합니다. 이번 남여대협 대의원대회는 여학일꾼들뿐만 아니라 전남대의 민족자주학교라는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지역 새내기들의 참여속에서 적극적인 의식화, 조직화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간 새터 및 각 투쟁속에서 모아졌던 새내기들이 남여대협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함께 모여 향후 투쟁을 결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함께 변혁의 길을 가고 있는 골간 일꾼들도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광범위한 대중을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의 준비를 다져가는 자리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4. 일시, 장소, 참가비

언제: 반미자주화의 해 4월 9일 금요일

장소: 민족전남대학교

시간: 오후 2시부터

참가비

✓ 각 대학별 정기회비 : 대학별 20만원씩

 대의원 회비 : 2만원

 일반 참가자 회비 : 3천원

 지참물 : 필기도구, 두터운 옷

5. 대학별 대의원대회 준비 이렇게

3,4월 각종 대중사업과 투쟁으로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하나의 사업의 제기는 다른 사업과의 연동선상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에서 단여일꾼과 각 과여학일꾼들까지 올바른 교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공식적 회의 (총여운영위, 단여 운영위, 중앙운영위, 세로모임) 등에서 함께 대의원대회 개최 및 성사에 대한 결의를 확보하고 대학별로 있는 총여 및 학생회의 대중행사를 잘 치루어내면서 그 안에서 조직화되었던 새내기 및 일꾼들을 대의원대회로 모아내야 합니다.

대학별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참가, 준비물

-각 대학별 모범 총화

모범을 총화하여 국의 형식 (집체극, 단막극, 노래극, 다양한 방도) 등 전파방도 고민해서 준비

모범의 내용을 극화하기 어렵다면 일꾼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예공연을 꼭 준비해 봅시다

머리띠/경찰/

-남여대협으로 일심단결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도 (집단적인 군중예술 준비)

-대의원대회 장소에 부착할 선전물 (○○대 여학일꾼과 학우에게 보내는 지지 프랑, 정치 프랑, 대자보, 조형물)

-각 대학 총여회장님의 인물선전물 (사진까지 부착하여)

대의원대회를 잘 가져가기 위한 사전방도

1) 남여대협 사업과 투쟁의 내용을 묻는 10만 학우 의견 개진운동

'남여대협'이라는 조직이 각 대학 핵심 여학일꾼들만의 조직이 아닌 이 지역 여학일꾼 모두와 학우들의 조직으로 대중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대협의 사업과 투쟁내용을 학우들에게 직접 묻고 총노선과 대의원대회 속에서 함께 풀어질 수 있게 할 의견 개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의견개진운동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하고 대학별로 선전할 예정입니다.

◀ 대상

여학일꾼/골간일꾼/10만 학우

◀ 방도

의견개진운동 설문지 작성

대학별 의견개진운동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분석

◀ 내용

영문권 위안부 학거리에게 편지
- 아북학우들에게 편지쓰기
 - 대전전국 학의 업무

당면투쟁에 대한 학우의견/ 자주교류 투쟁에 대한 설문/
이북 여대생들에게 하고픈 말/ 남여대협, 전여대협에 바라는 내용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편지쓰기/ 클린턴 대통령에게 항의 엽서 쓰기

2) 수요, 금요집회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갑시다.

여대협 대의원대회는 단순히 일꾼들 힘내는 자리가 아닌 투쟁의 공간, 학우 의·조직화 사업의 정점이 되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하루의 행사만 바라보지 말고 대의원대회에 투쟁의 성과가 나을 수 있도록 대학에서 열심히 수·금 선전을 일상화 해 나가도록 합시다.
총여단위에서는 이동총여를 제안합니다.

3) 각 단체 및 일꾼들의 대의원대회 축하 연대 편지 및 성명서 조직화

골간 일꾼들이나 과거 여학생운동의 선배 및 이 지역 여성 단체에 여대협 대의원대회 관련 축하의 글을 보낼 수 있도록 조직화할 예정입니다.
대의원대회가 있음을 알리는 문안과 초대의 글은 여대협에서 마련합니다.
대학에서 책임성 있게 조직화합시다.

4) 정치 여론 사업

각 대학 신문사와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론을 이용할 방도 고민
통신이용

5) 초정장 발송

6) 새내기 알림단 활동

작년 남녀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출범식 알림단인 '겨레지기'를 꾸려서 학내선전을 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일구어 갔었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본받아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새내기들을 꾸려 이 새내기들이 준비한 대의원 대회를 가져 갑시다. 먼저 이쁜 이름을 만들어서 각 대학 총여학생회에서 주체를 마련해 주도적으로 의식화에서부터 조직화까지 새내기 알림단의 활동력을 높여냅시다.

대의원대회 주제 :

6. 선전 의식화 방도

단순히 여대협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선언적 의미의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대의원대회기간 각 대학마다 반미자주화 주간을 설정하여 대학별로 대의원대회의 내용도 알려내고 반미 내용의 선전물로 대학을 도배하면서 투쟁의 기운을 고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포스터 선전

남여대협 대의원대회와 투쟁일정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 배포
3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각 과실 및 거점에 선전했으면 합니다.

◀ 통큰 선전

-대형 프랑 제작
통크게 제작하여 대학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걸어봅시다.
대형 프랑이 아쉬운 경우에 일반 프랑을 연속하여 붙이는 방도도 고민합시다.

-1단여별 1개 프랑 걸기. (개과 1개 프랑 걸기)

(색깔과 형식을 맞추어서 전 단대 별 걸면 좋은 선전물이 될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 누이 다 죽이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내용
경제침탈, 전쟁책동 미국은 이땅을 떠나라
미군 주둔비 삽감하여 교육재정, 실업기금 확보하자.
정신대 문제 해결 없이 경제침탈, 전쟁위협 일본을 반대한다

정리해고 일순위 여성실업, 취업문제 해결하라
우리 엄마 허리 휴게하는 가혹한 경제수탈 미국놈들 물려가라
민족○○대 여학우 단결하여 대의원대회 성사시키고 한총련 강화하자
교통분담 강요 말고 자립경제 수립하자
반여성정권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성사의 내용

◀기본선전

전공강의실/과학생회실/화장실선전/도서관/기숙사 선전
자보 선전

◀각 대학별로 4월 2일, 4월 3일 총궐기에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선전까지 함께 하여 유인물을 만들어 봅시다.
여대협에서 유인물 초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학 방송국, 신문사에 알리도록 합시다.

신문사에 알림란이나 광고란 및 기사란을 이용합니다.

◀기획 선전

각 대학마다 포스터와 함께 기획거리 및 선전

◀영상선전

여학생운동의 역사 및 여성들의 투쟁의 현장이 담긴 비디오 영상물을 상영.
주한미군 문제 관련하여 각 대학별, 소모임별 작은 영화제.

<12기 총회 VIDEO, 주미복비디오, 정진대비디오.>

◀여대협의장님 알림선전

12기 남여대협 임시의장을 알리는 선전물 게시 및 남여대협에 대한 역사 및 조직의 활동 소개

7. 조직화 방도

조직화는 여대협 산하 모든 여학일꾼, 새내기 골간일꾼까지
남여대협 강화와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관심있는 일꾼들은 누구나 다

단순히 여학일꾼 몇몇이 소리소문 없이 치루는 대의원대회가 아닌 이 지역 여학일꾼과 10만 학우의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조직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조직화 방도

◀ 대의원 조직화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 단대 여학부회장, 단대 여부장까지)

- 여대협 대의원대회 기획안
- 의견 개진 운동
- 자료집, 의장 추천서작업
- 총노선 안건 사전 협의 사업
- 대학 간담회 속에서 의장님과 만날 수 있도록

◀ 새내기 조직화

각종 총여 및 단여 대중사업에 조직화되었던 새내기들을 전체 모여 대의원대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사전 대의원대회 참가를 위한 새내기 모임을 가져갑시다.

-새내기학교

-문예판에 함께할 문예단 조직화도 함께 가져갑시다.

◀ 과여부장 조직화

과여부 모임이나 단여운영위 하방등을 통해서 조직화합시다.

-과여부장학교

◀ 골간일꾼 조직화

초청장 등을 통하여 내용을 알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특히 여자 간부님들을 많이 추동 했으면 합니다.

◀ 선배님 조직화

여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여학일꾼 선배님들을 조직화하여 힘있고 뼈대있는 자리로 만들어가 봅시다.

남·여학우 불문

단대 여학생회까지 책임 주체를 세워냅시다.

조직화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대의원대회 참석 전까지 단위별 대학별 모임을 가져가면서 내실 있게 목표도 나오고 조직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체 조직화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방도

초청장, 자료집 배포 발송

광범위한 의견 개진운동

의장 추천서

각 대학별 의장 추천 결의서

각종 대의원대회 관련 축하 및 의장님 응집에 관한 참신한 선전물, 선물 조직화

대의원대회를 받아 앉는 대학의 조직화 방도

작년 남여대협 총회를 치뤄냈던 광주대학교의 모범을 상기 시켜 봅시다.

여학일꾼들의 활동력을 높여내는 것은 투쟁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의원 대회를 받아앉는 대학인만큼 여학일꾼이 없는 단대를 적극 발동시켜 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여학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자기의 투쟁으로 적극 받아안을 수 있도록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자봉단 모집

새내기 문예단 및 문예일꾼 조직화

선전단

골간 일꾼 및 중앙일꾼들과 함께 조직화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전 단대 환영 프로그램 및 선전 조직화

기타 위에서 제출한 내용 함께

새내기 알림단

8. 대의원대회 내용

작은 마당

◀ 각종 전시 기획전

빈미의 거리(여성 열사와 미군 범죄에 살해된 여성 사진 및 기사)

생활 문화 운동의 내용

기지촌 활동 내용까지 (한국)

김대중의 1년간 여성정책의 허구성 (목포대)

남여대협 12년의 역사거리

모범 단위 소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거리 (28대) - 8일 전대협 교육

여성노동자의 거리(취업 문제와 연관하여)

성폭력 관련 거리 매춘, 학내 성폭력의 내용으로

자주교류내용

◀ 자료집에 실릴 내용

과여부, 소모임을 위한 내용
단대 여학일꾼들의 위한 간부 교양
모범자료
총노선

◀수요, 금요 선전 속에서 의견개진 운동의 내용을 풀어봅시다.

큰마당

• 일정 및 대의원대회 진행 순서 •

알음 한마당	대의원대회
<p>참가대상: 대의원대회 참가하지 않은 모든 학우들</p> <p>형식: 이 후에 있을 금요집회에 대비 사전 교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p> <p>여기에 대한 실질적 준비는 여학단위가 없는 전남대 단위를 적극 활동시켜서 할 수 있도록.</p>	<p>참가 대상: 각 단대 여학생회 및 부장까지</p> <p>논의 내용: 남여대협 의장 선출 임시체계 보고 강령, 규약 개정 남여대협 총노선, 예산안 토론 확정 특별결의문 채택</p>

반미자주화의 해 4월 9일 금요일

- 오후 2:00 전남대학교에 전체 집결
대학별 사전 교양 시간
- 3:00 알음한마당/ 대의원대회
- 5:00 금요 집회 (3월 26일)
- 7:00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닫는마당
식전행사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 및 투쟁내용 비디오 상영
개회사
민중의례
축사
전남대일꾼 축하공연 (3월 26일)
각 대학 투쟁내용을 담은 인식극 또는 문예물 ✓
남여대협 모범상 시상,
새내기 알림단 활동 보고
초청공연
알음한마당 보고 및 새내기 선언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보고
남여대협 대표자 소개
남여대협 의장 옹립
대동 마당
9:00 대동놀이 대운동장에서 (3월 26일)
→ *포름페-포름페!!*

사족:

남여대협 대의원대회는 단순히 여학일꾼들이 모여 1년 총노선을 수립하고 합의하는 것 뿐 아니라 이 지역 남총련 새내기들이 한데 어울려져 반미투쟁의 내용을 합의하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여학단위가 없는 대학 또한 향후 여학생회 건설의 장기적 전망과 4월투쟁을 만들어가는데 학우들의

의식화 공간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 대의원대회 안건 및 계획

1부 의장 선출

개회선언-애국의례-서기단선출-남여대협대의원대회 의안채택, 의사진행세칙, 일정등 공유-남여대협 의장 선출(선관위 활동 보고/ 유세 /선출)

2부 총노선 확정

강령과 규약 개정-12기 남여대협 임시체계 보고-12기 남여대협 총노선 토론 및 의결-남여대협 예산안 의결-주요방침에 대한 토론 및 의결

3부

특별집의문 체택 회의록 확인-폐회선언

10. 전체 일정 정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 고
22	23	24	25	26 남여대협 2차 군산미군기지 항의방문	27 민중대회 광주역 2시반	28 정신대 세미나 (서울)	총회기획안/ 총노선 1차 가안 제출 문제
29	30	31	4/1 총여 출범식	2 한총련 총궐기	3 민중대회	4	대학별 간담 회 및 선전 (포스터/초청 장/ 학내 선 전/조직화)
5	6	7	8	9 남여대협 대의원대회	10	11	반미자주화 주간, 대대 최종점검 및 참가,

대 학 간 담 회

대의원대회 준비기획단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준비 주체입니다
전남대에서는 총여를 중심으로 단대 여학생회까지 대대 준비주체를 세우고 문예단/자봉단/ 선전단 등을 고민해 봅시다.

대의원대회 예산안

포스터
자료집
유인물
초청장
선전비용 (프랑/자보/선전물품)
무대기획, 섭외비용
문예단, 자봉단 운영비용

100만원 + a

- 대학별주체 - 대대기획
- 새내기 알림단

[웃.
- 머리띠
- 어깨띠

(2) + (3)